

## 제5강 氣의 세계

(1교시)

### ◆ 氣와 physis

※ 학습목표: 고대의 氣와 physis에 대한 의미함축을 대략적으로 살핀다.

#### ▲ 氣와 physis의 의미함축

-그리스철학에서는 physis를 자연으로 번역한다. 하지만 physis는 오늘날 문화와 대립하는 것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다. 모든 세계의 것 혹은 모든 것의 원리란 뜻이다.

-그리스의 physis와 대비할 수 있는 동양의 개념이 氣이다. 氣라는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실체이다. 氣는 우리 몸의 일부가 아니고, 전체를 흐르고 있다. 그런데 이 氣는 외연을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氣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氣는 반드시 氣化로 말해진다. 우리 몸은 외연이 한 덩어리로 되어있다. 그래서 氣는 순환하게 된다.

#### ▲ 形·氣·神과 精의 의미

-形은 생명이 사는 곳, 氣는 생명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神은 생명을 운용하는 틀이다. 형의 자리에 동의보감에서는 精을 놓는다.

-形이 생명이 사는 곳이란 것은 氣가 사는 곳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공간을 말하고 또한 體이다. 즉 확인 가능한 구체적인 존재들이 形이다. 한편 지금의 形은 shape이지만 고대의 形은 body이다. body란 생명이 사는 곳이다.

-생명이란 곳이 있고, 그것을 氣가 채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이 곧 形이 되어 버린다. 오히려 氣 자체가 생명이다.

-神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넘어서는 것을 이른다. 이는 精과 비교되는데, 精은 농축된 정지 에너지이고, 신은 에너지가 운용되는 것이다.

#### ▲ 氣를 말하는 두 가지 맥락

-氣는 두 가지 맥락에서 말해진다. 우리의 몸을 얘기함과 우주전체·생명전체를 얘기함이다. 氣를 우리 몸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의학·신체 관련만 얘기하게 된다. 그러나 氣를 우주전체로 본다면 몸만 갖고 얘기하는 대목과 함께 형이상학적인 생각을 포함한다.

#### ▲ 오늘날 氣의 위상

-氣/physis가 세계의 바탕이라고 할 때, 공간과 물질과의 관계가 먼저 중요하게 된다. 氣는 그 실체성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막연하다. 氣의 개념은 생명·정신·물질을 다 포함한다. 그래서 허술한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氣는 생명·정신·물질을 갈라서 보지 않고 포괄한다. 즉 그 자체로 오늘날 존재론을 구축하는 것은 어렵지만, 존재론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참조점이 될 수 있다.

(2교시)

### ◆氣의 개념과 理의 등장

※학습목표: 고대적 사고에서 중세적 사고로 이행하는 과정을 개관한다.

#### ▲氣와 공간·물질

-만약에 진공을 인정한 경우 물질은 원자와 같은 것으로 상상된다. 반면 진공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가 우리를 꽉 채우고 있는 것으로 상상된다. 기는 흐름이라고 했는데 흐른다는 것이 원자들이 흘러간다는 얘기인지 연속체로서 흘러간다는 것인지, 이것은 공간과 물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다.

-공간과 물질을 구분하는 사유가 고대의 동양에는 없다. 다만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뿐이다. 기가 과연 공간과 물질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는 들뢰즈Deleuze에게서 나타난다. Deleuze는 사물이 실선으로 되어있지 않고, 점선으로 흔들리며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정확하게 끊어지는 원자하고도 다르고, 완벽한 연속체와도 다르다. 이러한 개념을 활용한다면 氣에 대해서 조금 더 정교화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자료



Deleuze Gilles(925 ~ 1995.11.4) 프랑스 철학자

#### ▲氣와 죽음과 삶

-人之生 氣之聚也 聚即爲生 散即爲死. (인지생 기지취야 취즉위생 산즉위사)

-이런 말이 가능하려면 기 자체가 이미 생명이어야 한다. 왜냐면 생명이 아닌 것이 모여서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반대로 기가 흩어진다고 죽음이라 할 수도 없다. 왜냐면 기가 원래 생명인데 흩어진다고 생명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기가 모인다는 데도 의문이다. 기가 모인다고 한다면 이미 기는 어느 입자와 같이 취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연 이런 공간적 움직임이 생명을 이해하게 해주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럽다.

#### ▲고대의 氣와 생명

-오늘날 氣는 문화와 대립되는 세계의 반쪽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氣/physis는 존재하는 세계를 살아있게 만드는 생명이었다. 氣/physis가 신성하게 여겨진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그렇기에 psyche와도 상응한다. 즉 자연은 생명이다.

-기를 물질로 번역할 수 없다는 생각도 그릇된다. 왜냐면 물질 개념 자체가 계속 변해왔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기가 물질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물질이란 개념에 어디까지 포함시

킬 것이냐의 문제다.

#### ▲형상/理의 등장

-氣로 막연하게 모든 것을 포함하던 사유에서 중세·성리학으로 가면, 오늘날 우리가 추상적 본질이나 정신적이라 부르는 것을 氣와 분리해서 보기 시작한다. 그래서 **물질성을 초월한 것들을 理라 부르며, 구체적이고 생명론적인 것은 氣라 부른다.** 즉 개념의 분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사유는 고도화될수록 점차 추상화된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서양의 경우 형상이며 동양의 경우 理이다. 이 개념들을 통해서 체계적인 사유가 가능하게 된다.

#### ▲본질주의 사고

-**추상적 사유와 본질주의적 사고의 발달은 맞물린다.** 추상적 사유는 인식주체에게 개별적이고 다양한 차이들을 추상적 본질로 흡수시킨다. 현상들은 차이로 나타나고, 이 차이는 인식주체를 일깨운다. 인식 주체들은 차이들 하나하나에 말을 붙인다. 이러한 차이에서 새로운 개념들이 나온다. 그러나 차이의 모든 생성에 말을 붙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차이 속에서 동일성을 잡아내고, 이질적인 다에서 추상적인 일을 잡아낸다. 즉 다양한 것, 차이 나는 것, 복잡한 것들을 정리해서 일반성으로 만들고 공통의 이름을 붙인다.

#### ▲동서양 초기 철학사의 유사성

-그리스, 인도, 동북아의 철학 사상들이 처음 펼쳐져간 과정을 보면 개념/뿌리들이 서로 형성되어가는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스의 경우 idea, eidos라는 말의 변천 과정을 보면 인지의 발달, 사물에 대한 이해, 개념의 진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는 理 개념의 형성과정과 비슷하다. 理는 본래 옥을 간다는 뜻이다. 여기서 질서가 잡혀 있지 않은 바탕에 질서를 부여한다는 뜻이 나온다. 이러한 사유는 질료형상설이 그러하듯이 氣와 리가 理가 구분되어서 氣는 물질적 바탕이고, 理는 그것을 조직해서 만든다고 말한다.

(3교시)

◆형상/理 중심의 사고와 그 너머

※학습목표: 형상·理 중심의 중세적 사유를 살피고 근대적 사유로의 이행을 개관한다.

▲理/형상 개념의 발전

-일정한 바탕의 질서를 부여함은 겉모습의 구분이 우선한다. 理도 처음에는 사물들의 겉모습을 구분/나눔을 뜻했다. 그러나 eidos가 그랬듯이 점차 사물의 심층적 질서, 조율을 뜻하게 된다. 그러면서 처음 뜻과는 반대로 사물의 안쪽을 뜻하게 된다. 여기서 어떤 근본 실체가 있어 그것이 결합해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의 바탕이 따로 있고, 물질적이지 않은 것들이 그것을 조직한다는 생각이 나타난다.

▲理와 道 그리고 세계의 이해

-理에는 길(道)의 의미가 함축되어있다. 이때의 道는 지표면에 나있는 길만이 아니라, 지구 내부에 나있는 길, 나아가 보다 추상적으로 사물을 이끌어 나가는 길·원리·이법을 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은 간명하니 천하의 理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즉 理가 발견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계를 합리적으로 간명하게 법칙화해서 이해할 수 있다.

▲주자의 태극太極·무극無極

-주자가 보기에 **태극은 무극이기에 태극이다**. 태극은 세계의 궁극적 용마루이다. 즉 초고의, 그리고 포괄적인 원리다.

-태극이 무극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태극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태극이 아니다. 태극은 우리의 구체적 경험을 넘어선 것이다. 즉 태극은 순수한 법칙성이다. 그러므로 태극은 물질성을 포함하지 않는 궁극의 형상이다. 이 법칙성·궁극의 형상을 주자는 理라 부른다.

참고자료



朱子(1130~1200) 성리학을 집대성한 남송의 유학자

▲현상의 존재하는 방식

-Aristoteles의 형상은 내재적인 대신 배타적이다. 형상이 질료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형상과 진료는 차별적이다. 반면 Platon의 형상은 초월적인 대신 보편적이다. Platon은 질료와 형상을 단적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Aristoteles에게 형상들은 각각의 개체들에 상응하여 존재하지만, Platon에게 형상은 훨씬 넓은 방식으로 존재하며 개체는 형상들

의 결을 통해서 존재한다.

-주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했는지는 알기 힘들다. 주자는 氣가 없이 理를 생각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氣가 없다면 理가 자리 잡을 터가 없다. 따라서 세계는 理라는 본질이 氣에 내제되어 있다. 그렇게 氣는 理의 부처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존재가 된다. 즉 Aristoteles처럼 사고하게 된다. 그러나 주자는 理가 氣에 독립해서 존재하는, 氣보다 우선적인 존재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럴 경우 氣는 理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즉 Platon처럼 사고하게 된다.

#### ▲형상/理의 초월성

-Platon, Aristoteles, 주자 등으로 대표되는 **중세적 사유는 형상·理의 초월성에 입각해서 사유했다**. 그 초월성의 정도는 다를지라도, 이 사유들은 기본적으로 영원한 일자로 각인된 apriori(선형성 은 초월성) 믿음을 바탕에 깔고 있다. 따라서 경험적인 것은 이 apriori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험 때문에 apriori가 상처받지는 않는다.

#### ▲중세적 본질주의에 대한 반기

-중세적 apriori의 붕괴는 경험·사실·실증성·가시성 등의 개념의 부상을 가져왔다. 즉 **존재론적 필연성의 틀을 벗어난 우발성, 이법의 틀에서 빠져나온 주체가 근대 사유의 근거로 자리 잡게 된다**. 우리 경험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가 구체적으로 마주치는 것들만 의미 있게 된다. 또한 그러한 실증성을 요구하게 된다.

#### ▲유한주의에서 무한주의로

-**중세적 사유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의 사유가 기본적으로 유한주의적 토대를 밟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한주의를, 닫힌 세계를 전제했을 때 apriori한 존재론이 가능하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무한한 세계의 개념이 등장했다. 17세기의 위대한 형이상학자들은 무한 개념에 입각한 사유를 전개했고,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수학적 무한 개념이 만개했다.

-그러나 **우주가 무한해지면서 인간은 유한의 데두리에 갇히게 된다**. 우주와 같은 오연을 가졌던 이성만은 현상계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진다. 그래서 유한한 우주와 함께였던 인간은 무한한 우주 속에서는 고독하게 된다.

#### ▲목적론과 목적론의 붕괴

-목적론은 중세적 사유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목적 개념을 통해서 세계를 본다는 것은 세계를 생명의 관점에서 보는 것, 더 나아가 **인간적인 요소를 세계 전체에 투영하는 것이다**. 또한 목적론의 존재는 길의 고착화를 뜻하기도 한다. 인간이 도달해야 할 실재, 인간이 걸어가야 할 도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인생의 모범답안이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목적론적 세계의 붕괴는 기존 도의 붕괴를 뜻한다**. 중요한 것은 진리에의 참여가 아니라 새로운 진리의 창조가 된다. 현대 철학자들은 이런 맥락에서 시간, 자유, 창조의 철학을 건설해왔다.

#### ▲氣·진료와 理·형상

-중세의 사유는 동일성의 사유다. 거기에는 apriori한 이법체계의 동일성, 유한한 우주의 동일성, 목적·道의 동일성이 깔려 있다. 이 동일성은 理·형상이다. 차이들은 동일성 내에서의

차이이며, 동일성을 벗어나는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氣·진료는 理·형상에만 입각해서 이해되었다. 이러한 사고가 중세 사유의 특징이며, 이 틀이 깨지면서 근대철학이 도래한다.